

## 세계 오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의 난관

우리나라처럼 교통망이 좋은 선진국에서는 백신을 접종 장소까지 옮기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태평양의 섬이나 극지방, 고산지대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백신을 전달받고 있을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다.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은 낮지만 걸리면 병원치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장소에 백신을 접종하려고 할 때에는 단순히 지형적 어려움만이 있지 않다. 고립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백신을 맞을 이유와 백신의 안전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즉 백신 접종에는 지형과 문화적 난관이 있다.

### [알래스카의 극지방]

알래스카에서는 도심을 벗어나면 살기 매우 불리한 환경이고, 인구도 거의 없다. 대부분이 극지방이라 연중 많은 기간 동안 사방이 눈으로 덮여있어 썰매나 스노우 모빌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백신을 운송하고 백신을 놓을 인력을 나르기 위해 썰매를 타고 다니기도 한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활주로 위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백신을 놓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알래스카 원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공급하였는데 다행히도 알래스카 원주민들은 외부에서의 코로나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고, 백신의 필요성도 강하게 느끼고 있어서 알래스카는 시골 지역의 접종률이 도시보다 높은 주가 되었다.



[Eagle, Alaska, on March 31, 2021. 백신을 옮기는 썰매.]

그러나 알래스카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고 주민들도 어느 정도 외부와의 접촉을 하며 살기에 백신 접종 사정이 나은 편이다.

[콜롬비아의 산간지역]



[콜롬비아의 미삭 부족에게 백신을 전달하러 다니는 지역 간호사 Anselmo Tunubala]

이 지역은 교통이 안 좋아 접근성이 낮을 뿐 아니라 약초 기반 전통의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지역 종교지도자들이 백신을 거부하여 주민들의 백신 접종에 어려움이 있다. 이들을 설득하고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같은 부족인 Anselmo Tunubala가 도보로 산지를 돌아다니며 그들과 같은 언어로 설득해 백신을 놓으러 다니고 있다.

[터키의 바스칼레 지역]



대부분의 필요한 것을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바스칼레의 시골 지역 사람들은 워낙에 고립된 곳에 살아 외부에서 코로나가 어떤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또한 이 지역은 쿠르드어를 쓰는데, 터키 정부는 오랜 기간 쿠르드족과 무력으로 싸워온 역사가 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위해 정부에서 파견한 터키어를 쓰는 의사들의 설득이 잘 통하지 않는다. 현지 운전기사들을 통해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해도 한 마을에서 한두 명 접종하는 정도라고 한다.

원래는 세계의 가장 외딴 곳들에는 백신이 어떻게 운송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찾아본 내용이 었다. 아마 드론 같은 신기술이 사용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관련 정 보를 찾다 보니 내 생각이 너무 한국 같은 선진국에 국한되어 있었음을 느꼈다. 일단 백신을 어떻게든 전달해주기만 하면 접종은 시간문제라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지역의 문화적 인 장벽이 백신 접종의 더 큰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이 아무리 인터넷의 시대더 라도 사람이 닿기 어려운 장소일수록 소식도 잘 안 닿다 보니 외부에서 큰 전염병이 돌아도 잘 알지 못할뿐더러 외부와의 교류가 적어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기에 설득에 애를 먹는다. 그리고 운송수단 또한 특별한 신기술을 사용한다기보다 현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 우가 많았다. 알래스카에서 개 썰매를 타고 백신을 나르다든가, 아마존에선 아마존 강을 따라 배를 타고 백신을 나르고 있었다. 아무래도 현지인들이 오래 그 교통수단을 써온 것은 그 지 역에서 그나마 그런 방법이 가장 신뢰도 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일 것이다.